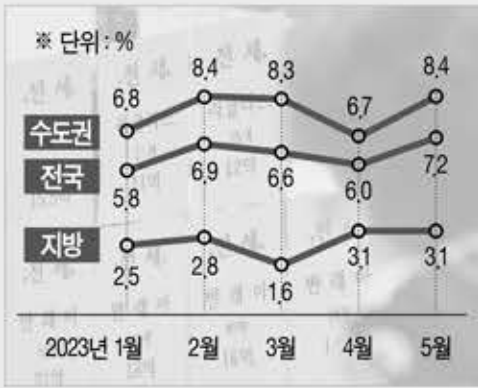


전세보증 사고율 역대 최고



▲ 전세보증금 사고 비율 추이. 자료-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에서 올해 하반기 전세시장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집값하락으로 집주인이 낮아진 전셋값만큼 보증금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세보증금 사고 비율은 전국 기준 7.2%(1,444건)로 집계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수도권(8.4%)은 올해 2월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고, 지방(3.1%)은 두 달 연속 고점을 넘어가고 있다. 전세계약 해지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고로 간주하는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같은 전국 전세보증금 사고율은 올해 2월 6.9%(1,121건)이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최고 40%를 넘는 곳도 나왔다. 지난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양평으로 45.4%에 달했다. 제주 서귀포시도 44.9%로 사고율이 높았다. 사고율이 20~30%대로 높은 지역도 적지 않다. 전세사기 진양지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34%)를 비롯해 서울 금천구(21%)나 인천 부평(24%), 경기 포천(23.3%)과 부천(20.3%)에서도 사고율이 20%를 넘었다. 지방에서는 광주 동구(22.3%), 전북 완주(20.3%)와 광양(20.3%)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최근 역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관련 방안을 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7년 만에 재추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7년 만에 재추진한다.

1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남산 곤돌라를 오는 2025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산에장공원과 남산 정상부 사이 800m를 잇는 노선으로 10인승 곤돌라 25대를 동시에 운행할 계획이다. 시간당 1,600~2,000명을 수송한다. 착공은 2024년 9월로 예정돼 있다.

남산 곤돌라는 2008년 추진됐다가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곤돌라 설치 비용은 400억원 규모의 공공재원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곤돌라 연간 수송량 300만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곤돌라 운영 수익은 별도 기금으로 운용해 생물 서식지 회복, 소나무 군락지 관리 등 남산 생태 회복에 활용된다. 공중보행로로 등산 수요를 분산해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이에 서



▲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 예상도. 사진=mk.co.kr

울시는 곤돌라 추진은 환경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일부 환경단체가 포함된 '지속 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협의회'도 발족했다. 이 협의회의 한봉호 위원장은 곤돌라를 떠받치는 지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식생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남산에는 이미 상당 부분 나무나 식생이 없는 상태인 곳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고금리 적금 깨는 청년들

출시 당시 은행업이 먹통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끈 한국의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여파로 20~30대의 급전 수요가 몰린 탓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율은 23.7%로 집계됐다.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청년희망적금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5,546명이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68만4,878명이 중도 해지했다.

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이 4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43.9%였다. 최고 납입 한도 50만원을 채운 청년들의

중도 해지율은 14.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의 중도 해지율이 낮았다. 중도 해지율이 가장 높은 가입 연령은 만 19세로 해지율이 무려 27.9%에 달했다.

해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은 만 34세로 21.2% 수준이었다. 남성의 중도 해지율은 26.9%, 여성의 중도 해지율은 21.6%였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